

‘희망’ 2015 신년 인터뷰

② 호남 밝힐 에너지밸리 주도-조환익 한전 사장

# “빛가람, 대한민국 전력 수도로 만들 것”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이끄는 조환익 사장은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이름이 높다. 지난 2012년 주민과 갈등이 빚어졌던 밀양 송전탑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간 무려 40번이나 밀양을 방문, 주민을 설득해 협의를 이끌어냈던 일화는 유명하다. 지난해 12월 본사를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지역사회에 빠르게 뿌리를 내린 것도 권위를 벗어 던진 조 사장의 리더십에 기인한 바가 크다. 조 사장은 특히, 6년간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한전을 지난해 흑자로 돌려세움으로써 남다른 경영능력도 함께 입증해 보였다.



인터뷰=홍행기 경제부장

-한전 본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로 이전했다. 와보니 느낌이 어떤가.

▲빛가람도시로 이전하기 전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열악한 면이 있지만 주거환경을 비롯해 교통편과 식당 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주 여건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직원들도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해서인지 얼굴이 밝아진 것 같다. 한전 직원들이 근처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더 따주면서 덕담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한전과 지역사회가 한 식구로서 따뜻한 정을 주고 받았으면 한다.

-빛가람 시대를 여는 올해엔 무엇에 중점을 둘 생각인지.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가 가장 기본 책무다. 이와 함께 올해는 한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S-mart Energy Creator, KEPCO'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창조와 융합의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다. 한전은 또, 에너지 신사업 개발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회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마이크로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융합사업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지역과의 소통 및 사회공헌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한전은 2004년 공기업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창단,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한전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조화로운 상생 발전을 통해 이곳 빛가람도시를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주민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지역학생 학습·취업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3가지 방안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주민생활과 문화활동 지원분야에서는 빛가람

**프로필** ▲서울 중앙고 졸업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뉴욕대 재무관리 MBA ▲한양대 경제학박사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산자부 차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한양대 안산캠퍼스 석좌교수

### 권위 벗어던진 설득·소통 리더십

### 나주 이전 한 달만에 지역사회 정착

### 주민생활·청년 취업·기업 지원

###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상생 도모

### 창조와 융합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에너지 신성장동력 발굴 역량 집중

도시에 친환경 문화공간인 에너지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문화 소외층을 고려한 맞춤형 콘서트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정의 고국 방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나주 주민과 심리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차1촌 자매마을 결연'을 하는 등 유대감을 강

화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다. 지역 학생들의 학습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역 대학 전기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원격강의를 지원하고 전력그룹사와 합동 순회채용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으로는, 전기제품 제조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및 IT업체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등의 복안을 갖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자체, 지역기업과 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사회에 더 나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은 한전의 핵심사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은 '대한민국 전력 수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본사 지방이전을 역발상의 계기로 삼아, 빛가람도시를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일본의 '도요타시'처럼 에너지·전력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Global+Local) 창조경제 단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전이 다양한 에너지 융합사업 개발을 통해 친환경 미래도시로 조성하게 될 에너지밸리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진도군 가사도에 국내최초로 구축한 에너지 자립섬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난 것이 좋은 사례다.

-직원들로부터 신뢰가 두텁다고 들었다. 업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기업에 몸을 담으면서,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소통과 신뢰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실천해 왔다. 한전은 사업소만 200여곳에 직원도 2만명이 넘는다. 모두 다 찾아보고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평소 직원들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소통을 하고 있다. 본사 이전을 앞두고는 전 직원에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감시다.'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의 관행, 고정관념 등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빛가람 시대를 시작하자.'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처음에는 대필한 것인 줄 알고 직원들의 반응이 적었는데, 직접 썼다는 것이 알려진 후에는 직원들로부터 수백 통의 답장을 받기도 했다.

-새해 화두로 '일신월이'(日新月異)를 정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재작년 한전에 와서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화두로 정하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작년에는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성과를 만들자는 뜻에서 '집사광익(集思廣益)'으로 화두를 정했다. 결국, 전 직원이 단결해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흑자로 전환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 올해 사자성어인 일신월이(日新月異)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라는 뜻이다. 그동안 쌓은 믿음(無信不立)과 지혜(集思廣益)를 바탕으로, 이곳 빛가람에서 한전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올해 한전은 일신월이의 마음가짐으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 전력설비 건설 같은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좀 더 질적인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 광주시·전남도·나주시, 한전과 '막걸리 소통'



5일 나주시 금남동 한 식당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이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및 임원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를 갖고 막걸리 건배를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공기 확실히 달라” “분명히 피부 좋아져” “건강센터 문 열고 119소방센터도 곧 개소”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생각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자, 원샷”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낙연 전남지사의 건배 제의로, 윤장현 광주시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 광주시와 전남도의 간부, 한국전력 임원진들이 서로의 막걸리잔을 부딪쳤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막걸리 소통'이 5일 오후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나주시 산정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는 이날 일정보다 조금 일찍 한정식집을 찾아 '100년 손님'인 한전 임원진을 기다렸다.

이 자리는 “서로 이야기를 편하게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딱딱한 회의보다는 서로 정을 나누며 격이 없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이 도착했다고 전해들은 이 지사는 현관 앞으로 나가 자리까지 안내했다.

이 지사는 “오늘 서울에서 한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다”며 “잠실에서 28년을 산 에(한전)가 나주에서 비단을 짜게 됐다. 이는 너무나 기막히게 좋았다”고 추켜세웠다. 조 사장이 서울 한 강에서 누에가 실을 뽑는 ‘잠실’에서 비단의 고을 ‘나주’로 이전했다고 비유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전의 나주 이전은 숙명이라는 의미다.

조 사장은 “오늘 제가 한 말을 어떻게 실 시간으로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튼

빛가람혁신도시로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미소지었다.

곧이어 도착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일일이 한전 임원진과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건넸다.

윤 시장은 “안과 의사 출신이라 제 눈을 속일 수는 없는데, 분명히 피부가 좋아졌다”고 덕담을 했다. 이에 조 사장은 “공기가 너무 좋다”고 화답하며 건배했다.

첫 번째 자리를 가진 이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빛가람혁신도시의 미흡한 기반시설로 옮겨졌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앞으로 교통, 의료로 시작으로 유통, 문화 등 각종 시설을 신속하게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늘(5일) 건강재활증진센터가 개소했는데, 전남도가 지원해줘 소아과·내과 전문의, 한의사 등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등도 놓았고 조만간 119소방센터도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오는 7일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임원진과 만나는 등 13개 공공기관과 연이어서 만나 '막걸리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통한 미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전기관 임원진과 '대면' 접촉을 늘리면서 이전기관들의 정착과 그에 따른 지역 내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그 속도와 정도를 더할 전망이다. /나주=윤현석기자 chadol@

### 전국 6만3000개 경로당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지정 운영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노인회와 '노인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대한노인회는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이삼 대한노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의실

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전국 6만 3000여개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국 경로당에 노인학대 예방법과 발견시 대처방법을 소개하는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노인학대 신고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언하고 나선 뒤로 중국으로  
개의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  
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민 모두가 사랑 주인이다.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의 기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